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1년 5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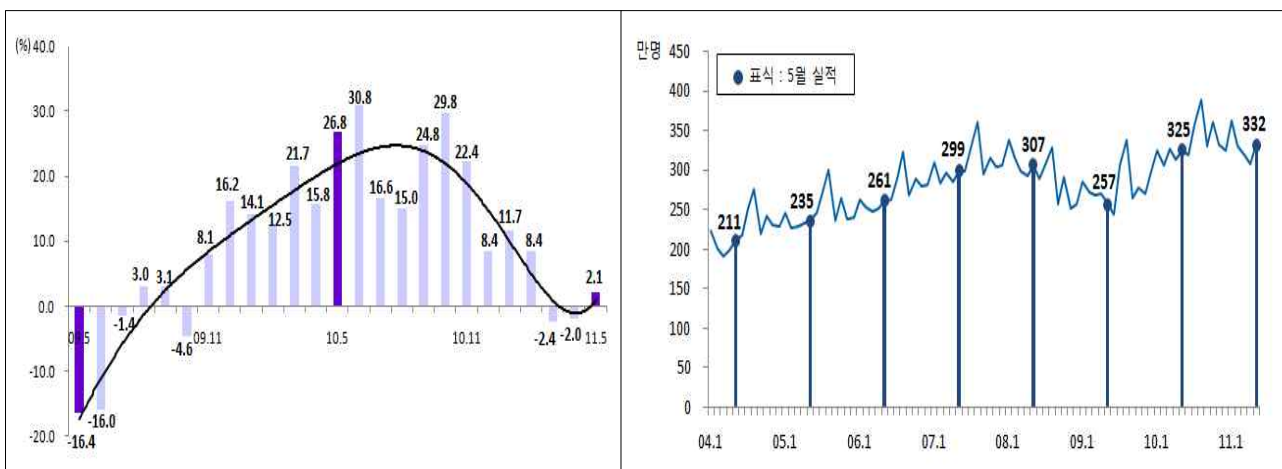


2011년 5월 우리나라 항공운송동향분석

- ❖ 5월 연휴 여행수요 증가, 원화강세 등으로 국내·국제여객 모두 전년대비 각각 2.1%, 3.4% 증가, 국제여객은 역대 월별 최대실적을 기록. 항공화물은 IT제품 수출입 물량이 지속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8.7% 감소

국제여객

2011년 5월 국제여객은 국내 징검다리 연휴, 일본·중국 연휴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1% 성장한 3,320,215명을 달성하였다. 이는 역대 월별 최대 실적으로, 지난 3월부터 일본 대지진, 방사능 확산 피해 우려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국제여객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었다. 아래 <그림 1>은 국제여객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실적추이를 나타내어 준 그래프이다.



<그림 1> 국제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아래 <표 1>은 공항별 국제선 운항 및 국제여객실적을 정리한 표로, 공항 전체적으로 운항은 전년대비 5.6% 증가, 여객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김해·김포·대구공항은 전반적으로 운항 증가와 함께 여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무안공항은 운항 감소와 함께 여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청주공항은 운항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지만 중국여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한자리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해공항의 경우 노선의 30~40%를 점유하는 일본노선의 운항 및 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16.8%, -28.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홍콩, 필리핀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제주공항은 전월에 이어 외국인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전년대비 -18% 감소세를 보였다. 대만(6.2% 점유)여객수요가 -40%이상, 일본(52.5% 점유)과 중국(40.1% 점유) 여객수요가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공항별 국제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5월	'11년 5월	전년대비	'10년 5월	'11년 5월	전년대비
인 천	17,782	18,621	4.7%	2,653,905	2,715,493	2.3%
김 해	1,932	2,189	13.3%	250,485	266,876	6.5%
김 포	1,246	1,437	15.3%	251,790	254,362	1.0%
제 주	486	413	-15.0%	64,241	52,654	-18.0%
대 구	102	127	24.5%	13,168	16,191	23.0%
청 주	67	77	14.9%	9,131	8,849	-3.1%
무 안	70	56	-20.0%	9,122	5,790	-36.5%
양 양	6	0		776	0	

〈표 2〉 지역별 여객실적

(단위 : 명)

구 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5월	906,626	776,377	876,449	319,561	226,211	94,392	53,560
'11년 5월	700,850	847,191	1,013,475	341,679	259,921	101,911	55,188
전년대비	-22.7%	9.1%	15.6%	6.9%	14.9%	8.0%	3.0%

〈표 2〉는 지역별 국제여객실적을 나타내어 준 것으로,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이 증가세를 지속, 일본 수요 감소분을 중국 및 동남아수요가 충당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노선의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3월 -17.1% 감소, 4월 -30.3% 감소, 5월 -22.7% 감소함으로써 4월에 감소폭이 커졌다 5월에 다시 줄어들며 회복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4월에 20.0%로 전년대비 -8.2%p 감소하였으나 5월에는 21.1%로 전년대비 -6.8%p 감소함으로써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는 연휴기간을 이용한 단거리 국제여행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부정기편을 집중 투입시킴으로써 여객수요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는 '10년 태국 반정부시위로 인한 수요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기준) 발생한 아이슬란드 남부 바트나요쿨 빙하지대 그림스보튼 화산폭발은 초기에는 손실 및 파급효과가 '10년 에이아프얄라요쿨 화산 폭발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화산 분출이 5일 만에 중단됨으로써 운항이 신속히 정상화되어 지난해 유럽항공대란과 같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 그림스보튼 화산폭발, 지난해와 같은 유럽항공대란은 이끌지 않아]



(지난 5월 21일 아이슬란드 그림스보튼 화산이 강력한 분출을 일으키며 20km 상공까지 연기기둥이 치솟아 잠정적으로 영공이 폐쇄되었으나 점차 분출 강도가 약해지면서 23일 케플라비크 공항이 운항을 재개하며 정상적인 운항을 시작함)

유로컨트롤에 의하면 지난 23~25일 유럽에서 운항이 예정됐던 약 9만 편의 항공편 가운데 화산재로 인해 운항이 취소된 경우는 900여 편으로 약 1%에 불과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지역별 국적사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분담율을 나타내어준 표이다. 2011년 5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노선 평균 65.5%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6배 증가하여 3.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환승여객¹⁾은 연휴기간 직항여객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10.9% 감소, 전년대비 7.8% 증가한 432,732명 달성, 환승률도 전월대비 -3.3%p 감소, 전년대비 0.8%p 증가한 15.8%를 기록하였다.

1) 환승여객 월별추이 : 53만 명('11.03) → 49만 명('11.04) → 43만 명('11.05)
 환승률 월별추이 : 20.2%('11.03) → 19.1%('11.04) → 15.8%('11.05)

〈표 3〉 지역별 국적사 및 저비용항공사 분담율

(경유지포함, 단위 : %, %p)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5월	'11년 5월	증 감	'10년 5월	'11년 5월	증 감
일 본	국적사	70.9	72.7	1.8	71.3	72.4	1.1
	외항사	21.5	19.8	-1.7	23.3	21.4	-1.9
	LCC	7.5	7.5	-0.1	5.4	6.2	0.8
중 국	국적사	52.1	54.1	2.0	54.9	57.5	2.6
	외항사	47.7	44.3	-3.3	44.9	40.9	-3.9
	LCC	0.3	1.6	1.3	0.2	1.6	1.4
동남아	국적사	56.2	51.3	-4.9	55.0	51.9	-3.1
	외항사	40.7	42.0	1.3	43.3	42.7	-0.6
	LCC	3.1	6.7	3.5	1.7	5.4	3.7
미 주	국적사	60.2	62.4	2.1	87.6	85.0	-2.6
	외항사	39.8	37.6	-2.1	12.4	15.0	2.6
	LCC	0.0	0.0	0.0	0.0	0.0	0.0
유 럽	국적사	63.3	59.5	-3.8	61.7	58.4	-3.3
	외항사	36.7	40.5	3.8	38.3	41.6	3.3
	LCC	0.0	0.0	0.0	0.0	0.0	0.0
대양주	국적사	81.6	72.3	-9.3	88.2	82.5	-5.7
	외항사	5.0	18.2	13.2	3.0	9.6	6.6
	LCC	13.4	9.6	-3.9	8.8	7.9	-0.9
기 타	국적사	35.7	24.0	-11.7	25.1	17.5	-7.6
	외항사	64.3	76.0	11.7	74.9	82.5	7.6
	LCC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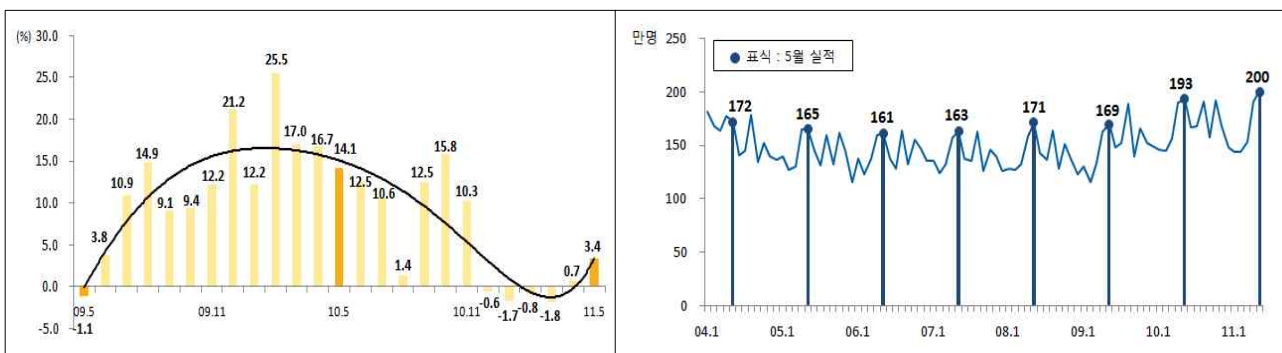
국내여객

국내여객은 수학여행,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다양한 운임 할인,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4% 증가한 1,999,573명을 달성하며 전월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의 경우 전년대비 9.9% 증가한 반면 내륙노선은 -16.0% 감소하였다. 특히 KTX 2단계 개통 이후 울산·포항공항은 5월 전년대비 각각 -42.6%, -25.2% 감소하였고, 2011년 1~5월 전년대비 각각 -42.0%, -24.4%로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공항의 경우 저비용항공사 운항 증대 및 운임 할인, 봄철 제주 올레길 관광, 수학여행 등으로 인한 내국인 여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9.5% 증가하며 공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향후 몇 달간 여름방학 및 휴가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제주 관광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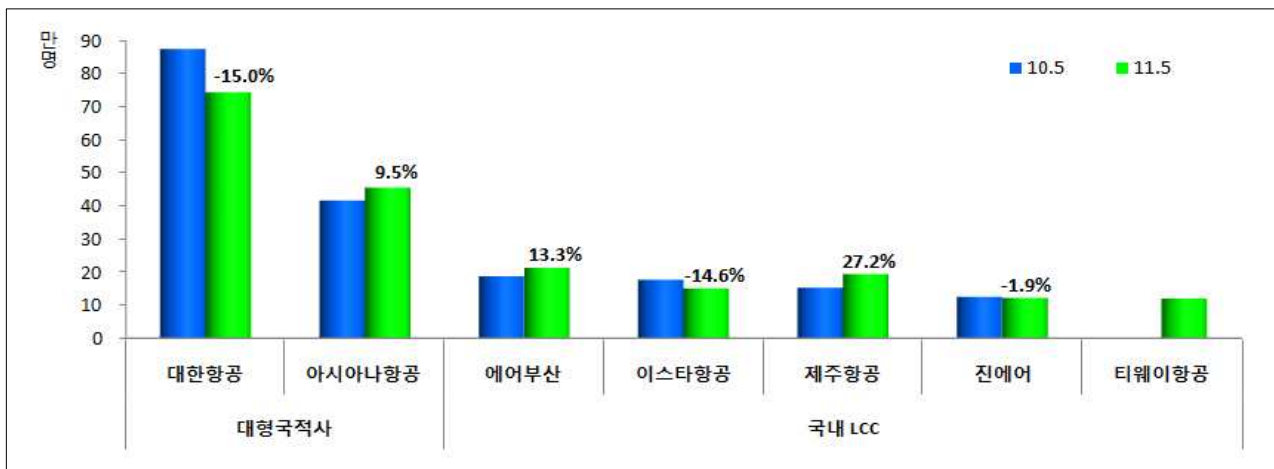
5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수송량은 798,802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배 증가, 분담율도 6.8%p 상승한 39.9%를 기록하였다.



〈그림 2〉 국내선 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표 4〉 공항별 국내선 운항 및 여객실적

구 분	운 항			여 객		
	'10년 5월	'11년 5월	전년대비	'10년 5월	'11년 5월	전년대비
제 주	4,353	4,852	11.5%	735,357	805,017	9.5%
김 포	4,516	4,785	6.0%	670,866	682,166	1.7%
김 해	1,750	1,697	-3.0%	235,904	241,043	2.2%
광 주	446	460	3.1%	60,590	61,393	1.3%
청 주	347	333	-4.0%	53,169	56,213	5.7%
대 구	309	313	1.3%	48,249	49,130	1.8%
여 수	217	249	14.7%	28,321	27,593	-2.6%
울 산	360	250	-30.6%	44,557	25,575	-42.6%
인 천	189	220	16.4%	22,109	21,905	-0.9%
포 향	153	153	0.0%	14,840	11,100	-25.2%
군 산	58	62	6.9%	7,752	7,767	0.2%
사 천	92	79	-14.1%	7,458	6,326	-15.2%
원 주	31	31	0.0%	3,174	3,895	22.7%
무 안	31	9	-71.0%	1,347	450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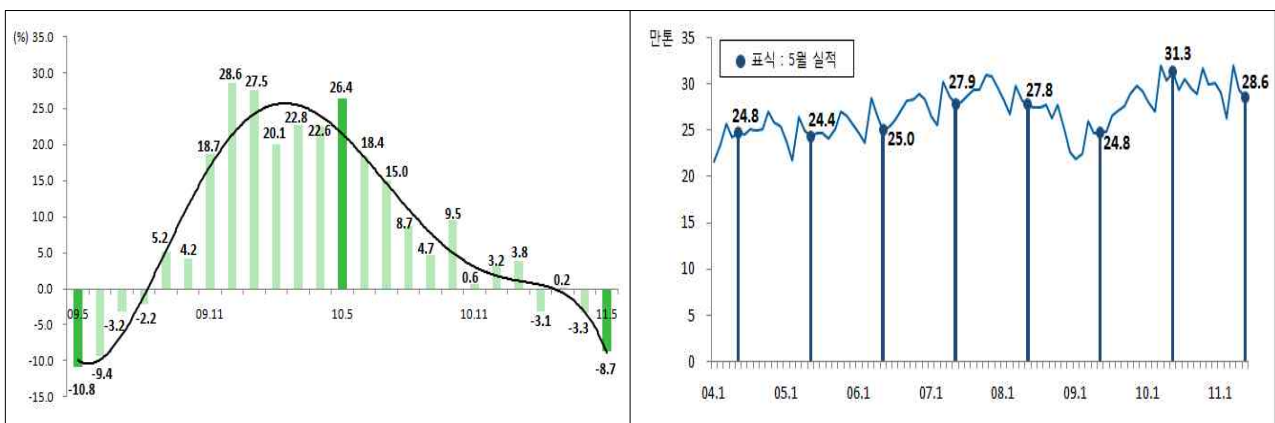


〈그림 3〉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항공화물

5월 항공화물은 '10년 상반기 이래적인 보인 급반등세로 인한 기저효과, 단가하락으로 인한 반도체·액정디바이스 등 주요 항공수출입 물량 감소,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한 항공운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한 285,702톤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화물실적 추이를 국제화물과 국내화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제화물은 '10년 LCD 패널 유입량 급증으로 증가하였던 IT관련 제품 수출입 물량이 패널단가하락, 제품소형화 트렌드, 유가상승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9% 감소, 전월대비 -2.2% 감소한 263,155톤을 달성하였고, 국내화물은 전년대비 8.8% 증가, 전월대비 -7.4% 감소한 22,548톤을 달성하였다. 국내화물 운송량에서 많은 비중을 점유²⁾하는 제주·김포·김해공항의 실적변화를 살펴보면 제주공항은 전년대비 11.9% 증가, 김포공항은 전년대비 6.6% 증가,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6.2%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실적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항공화물 전년 대비 증감률 및 실적추이 그래프

- 2) 제주공항: 2011년 5월 기준 45.4% 점유
 김포공항: 2011년 4월 기준 27.9% 점유
 김해공항: 2011년 4월 기준 13.3% 점유

〈표 5〉은 지역별 화물실적을 나타내어준 표로, 일본·중국·유럽은 -1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동남아·미주는 -5%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공화물의 감소추세는 주요품목인 IT제품의 수출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5월 IT수출은 전년대비 4.7% 증가하며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 지속, IT 제품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인한 수출입 감소,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의 글로벌 확대추세 등으로 소폭 약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대양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전년대비 -9.8% 감소한 93,727톤을 달성하였다.

〈표 5〉 지역별 화물 실적

(단위 : 톤)

노 선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 타
'10년 5월	39,609	56,084	70,755	65,491	52,825	4,008	3,452
'11년 5월	32,986	48,856	67,120	59,469	46,382	4,402	3,939
전년대비	-16.7%	-12.9%	-5.1%	-9.2%	-12.2%	9.8%	14.1%

4월 공항 출입국동향

2011년 4월 일본의 지진발생 및 방사능 유출 및 확산피해 우려가 지속되면서 전체 외래국 입국은 전년대비 3.3% 증가, 내국인 출국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항을 이용한 외래객 입국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64만 명, 내국인 출국은 -4.0% 감소한 81만 명으로 내국인의 비율은 56% 수준이었다.³⁾

- * 전체 출입국자 : 162만 명, 공항 이용 출입국: 145만 명
- *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10.4월 62만 명 → '11.4월 64만 명)
- *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10.4월 85만 명 → '11.4월 81만 명)

전체 외래객 입국 중 공항이용 외래객입국은 84.7%, 전체 내국인출국 중 공항이용 내국인 출국은 93.6%로 둘 다 인천, 김해, 김포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항별로 살펴보면 외래객입국의 경우 제주공항이 전년대비 -4.7% 감소하며 유일하게 (-)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김해·청주공항이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국의 경우 일본 방사능 확산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김포·인천공항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공항은 일본 여행수요 감소로 인해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출입국 현황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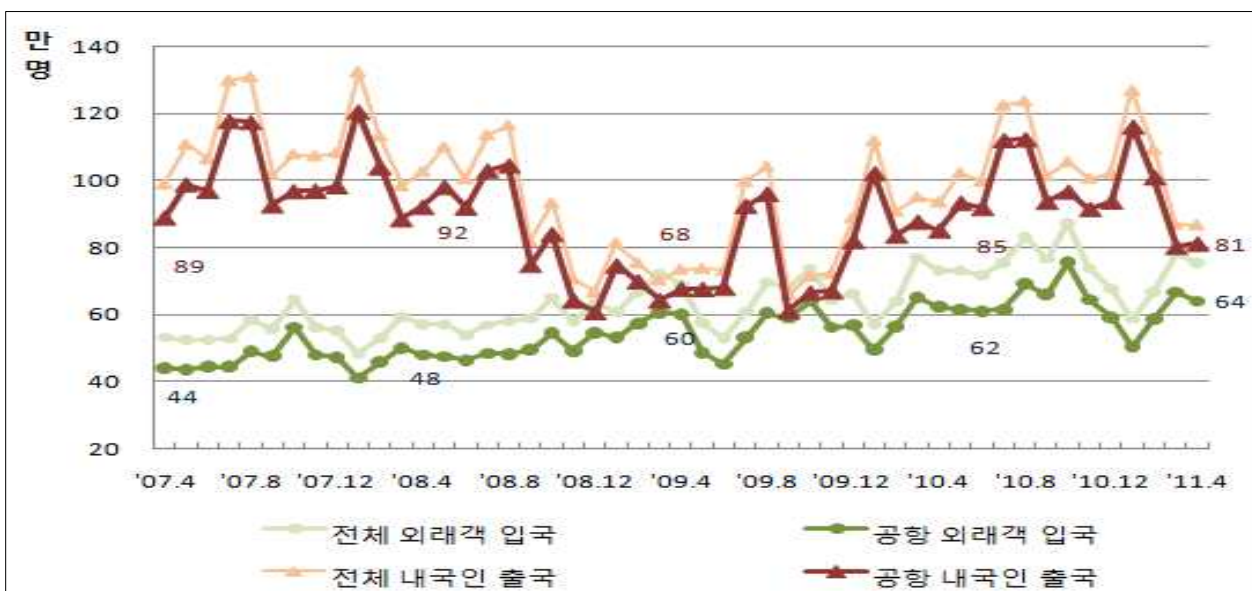
구 분	공항					비율	항구	비율	합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기타					
외래객입국	480	47	79	30	4	639	84.7	115	15.3	754
내국인출국	668	42	86	3	13	812	93.6	55	6.4	867
계	1,148	89	165	33	17	1,452	89.5	170	10.5	1,622

3) 출입국통계는 항공통계와 집계기관이 다르고 승무원, 유아, 군공항, 환승 등에서 집계기준 차이 발생

〈표 7〉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율 (%)
	'10. 4월 입국	'11. 4월 입국	증감 (%)	점유 (%)	'10. 4월 출국	'11. 4월 출국	증감 (%)	점유 (%)	
공 항	620,546	639,264	3.0	84.7	846,246	812,335	-4.0	93.6	56.0
· 인천	472,007	479,957	1.7	63.6	692,071	668,293	-3.4	77.0	58.2
· 김포	74,788	78,642	5.2	10.4	55,140	41,970	-23.9	4.8	34.8
· 김해	40,651	46,842	15.2	6.2	85,782	85,870	0.1	9.9	64.7
· 제주	31,378	29,888	-4.7	4.0	3,017	3,154	4.5	0.4	9.5
· 청주	242	1,988	721.5	0.3	1,924	3,354	74.3	0.4	62.8
· 기타	1,480	1,947	31.6	0.3	8,312	9,694	16.6	1.1	83.3
항구 등	109,719	115,194	5.0	15.3	89,658	55,152	-38.5	6.4	32.4
합 계	730,265	754,458	3.3	100	935,904	867,487	-7.3	100	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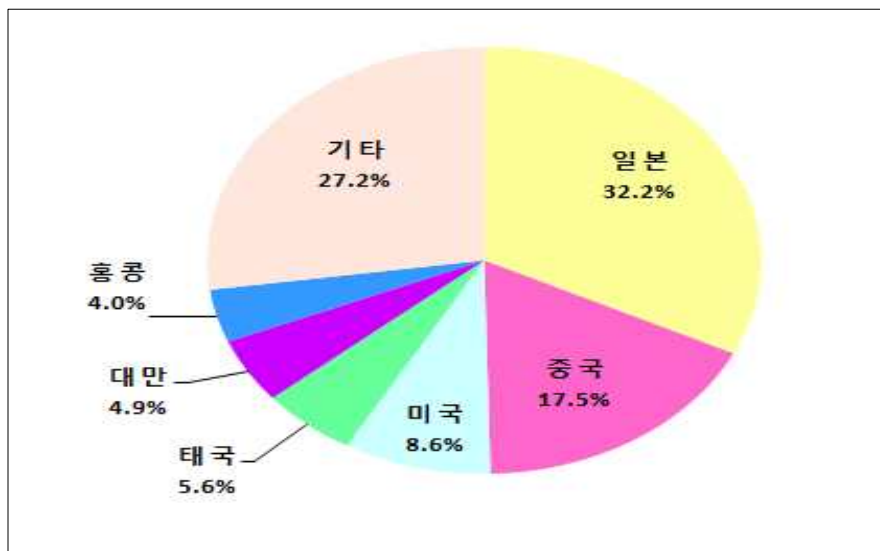


〈그림 5〉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표 8〉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입국					공항 전체	성장률 (%)	국적별 점유(%)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일 본	220,142	104,408	68,530	22,709	10,092	205,752	-8.5	32.2
중 국	153,875	88,686	2,436	4,877	13,241	111,575	9.4	17.5
미 국	58,220	51,770	1,053	1,446	185	55,211	-5.2	8.6
태 국	36,188	33,549	184	1,302	21	35,612	8.2	5.6
대 만	31,982	27,265	181	2,178	1,962	31,593	-4.5	4.9
홍 콩	25,814	21,997	83	3,327	193	25,652	30.5	4.0
전 체	754,458	479,957	78,642	46,842	29,888	639,264	3.0	100.0



〈그림 6〉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그래프

마지막으로 4월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지진 발생 및 방사능 유출사고 여파로 일본인 입국자가 3월 -12.4% 감소에 이어 4월 -8.5% 감소함으로써 감소세를 유지하였고, 대체관광수요 영향으로 중국과 태국 입국자는 약 8% 이상, 홍콩 입국자는 약 30%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통계 유의사항)** 2011년 3월 항공운송동향분석부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의 노선별 실적이 전체 공항 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분석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 자료만 비교분석하였으므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지역 구분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포함 국가	비고
일본	일본	
미주	미국, 브라질, 아이티, 칠레, 캐나다, 페루	괌, 호놀룰루, 사이판 제외
동남아	네팔, 대만,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고,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홍콩, 마카오, 사이판 포함
중국	중국	홍콩, 마카오 제외
유럽	(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공화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CIS) 그루지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대양주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피지, 호주	괌, 호놀룰루 포함
기타	(중동)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터키, 파키스탄	
	(아프리카) 콩고	
	(기타) 국제선 국내공항 경유 노선	